

“1군무대를 향하여”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개막... KIA, 4-5 넥센에 역전패

한대화 코치 “목표는 강한 2군”

1군 무대를 향한 도전의 무대가 열렸다. 프로야구 퓨처스리그(2군)가 2일 개막했다. 남부리그의 KIA 타이거즈는 함평 전용 구장에서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로 2013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투수로 전향한 뒤 첫 공식 등판에 나선 김윤동이 4회 몸에 맞는 볼과 볼넷 그리고 장채환의 안타로 무사 만루에 몰린 뒤 김지수의 안타로 선취점을 내었다. 한승혁이 중간계투로 나섰다. 문우람의 희생플라이와 2루수 유영목의 실책이 나오면서 점수는 0-3이 됐다.



KIA 선발 김윤동이 2일 함평전용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퓨처스리그 개막전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



KIA 한승혁이 2일 함평전용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퓨처스리그 개막전에서 선발 김윤동에 이어 공을 던지고 있다.

로 제한, 경기시작 1시간30분 전까지 엔트리 등록을 마감하도록 했다. 엔트리에서 탈락될 경우 3일간 재등록이 불가능하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손연재 컨디션 난조...월드컵 불참하나

구토·발열 증세에 출전 차질

‘리듬체조의 요정’ 손연재(19·사진·연세대)가 컨디션 난조로 시즌 첫 월드컵대회 출전에 차질이 빚어졌다.

손연재는 4일(이하 현지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시작하는 월드컵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2일 전지 훈련지인 러시아를 떠나 리스본으로 향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출전하는 월드컵이라 손연재는 지난 2주간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의 노보고르스크 훈련장에서 살을 빼는 동시에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기관리에 힘쓰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하지만 주말동안 구토와 발열증상을 겪는 등 몸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대회출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치진과 상의해 일단 출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리스본으로 출발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출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손연재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최대한 출전하는 쪽으로 고려중”이라며 “트레이너가 함께 나가서 몸 상태를 계속 지켜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 식중독인 것 같은데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며 “주말에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설명했다.

손연재는 이번달과 다음달에 걸쳐 4개 월드컵대회에 출전하고 7월 하계 유니버시아드에 나선 뒤 8월 세계 선수권대회까지 여정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컨디션 난조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거인 잡는 ‘LA 몬스터’ 오늘 첫 출격

류현진 메이저리그 데뷔

“10승 올려 신인왕에 도전”

‘괴물 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3일(이하 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정규리그에서 대망의 첫 신고식을 치른다.

류현진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메이저리그에 공식 데뷔한다. 이날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선수가 처음으로 마운드에 오르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류현진은 당초 4~5선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다저스 선발진이 연쇄부상으로 시름하는 사이 시범경기에서 확실한 구위를 끌어올려 개막 2선발 자리를 꿰찼다.

류현진은 시범경기에서 7경기에 등판, 27.1이닝동안 삼진 27개를 잡아내며 2승2패와 평균자책점 3.29를 찍어 실력을 입증했다.

초기에는 순간적으로 흐트러져 집중타를 얻어맞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완벽한 투구를 해 우려를 씻어냈다. 류현진은 개막을 앞두고 10승이상을 올려 신인왕을 노리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는 등 자신감에 충만한 모습이다.

3일 첫 경기는 바리크에서 류현진의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다. 지난해 월드 시리즈를 제패한 샌프란시스코는 다저스와 전통의 라이벌 팀이다. 다저스가 25년 만에 월드시리즈 타이틀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인 만큼 여기서 좋은 투구를 보인다면 신임을 받을 가능성도 커

류현진 3일美프로야구 선발 등판

이름: 류현진
 영문이름: (Hyun-Jin Ryu)
 생년월일: 1987년 3월 25일
 키: 188.9cm
 몸무게: 115.6kg

2006년 한화 입단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국가대표
 2009 WBC 국가대표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2012년 LAD다저스 입단

류현진 주요 구종(평균 구속)

체인지업	120~125km/h	포심패스트볼	140~145km/h
슬라이더	128~133km/h	커브	122km/h

LA다저스
 1883년 창단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홈구장: 다저스타디움 (1962년 개장)

우타 좌완

류현진 (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진다. 그만큼 난적인 것도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 선발로 내정된 좌완 매디슨 범가너는 지난 시즌 16승 11패 평균자책점 3.37을 남긴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올해 시범경기에서도 6경기에 선발 등판해 19.2이닝을 던져 2승과 평균자책점 2.29를 기록했다. 다저스 타선이 올 스프링 캠프에서 왼손투수를 상대로 30개구단중 29위인 0.232의 빈타에 허덕였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타선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상대를 철저히 봉쇄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지난해 메이저리

그팀 타율 5위(0.269)에 오른 강타선을 자랑한다. 올 시범경기 타율도 0.281로 좋았고, 특히 좌투수 상대로는 0.300의 맹타를 휘둘러 경계가 필요하다. 지난 시즌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버스터 포지를 필두로 앞뒤에 파블로 산도발, 헨터 펜스가 버틴 ‘클린업 트리오’는 경계대상 1호다.

특히 우타자인 포지는 지난 시즌 왼손투수 상대로 타율 0.433과 장타율 0.793의 맹위를 떨쳤다. 산도발의 좌완 상대 타율도 0.299로 시즌 타율(0.283)보다 높았다.

테이블 세터를 구성하는 마르코 스퀴타로와 알렉스 파간도 각각 좌투수 상대 0.352와 0.271의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 스위치 히터인 파간과 산도발을 포함해 이들 다섯 타자는 모두 류현진을 상대로 오른쪽 타석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류현진을 ‘대한민국 에이스’로 만든 주무기인 체인지업이 우타자의 바깥쪽으로 얼마나 예리하게 떨어져 주느냐가 공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류현진은 시범경기에서도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 0.159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추신수 2안타·3 출루 “툭타자는 이런 것”



추신수(신시내티 레즈)가 2일(한국시간)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 홈 개막전 3회말에서 풀카운트 접전끝에 위배의 6구째 140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좌전 2루타로 연결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추신수는 5타수2안타1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신시내티 데뷔전 만점 활약... 팀은 연장 13회서 패배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미국 프로야구 2013 정규시즌 개막전에서 멀티 히트에 1득점을 터뜨리는 맹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치러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 개막전에서 1번타자겸 중견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 공격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특히 3회 선두타자로 나서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상대투수의 폭투때 과감하게 홈베이스를 훔치는 장면은 신시내티가 기대한 테이블 세터의 역할 그 이상이었다. 공격에서는 만점활약을 펼친 추신수지만 새롭게 주어린 중견수 보직적응에는 아직 어려움을 드러냈다.

추신수는 1-1로 팽팽하게 맞선 연장 12회 1사후 퍼터 보저스의 머리위로 날아오는 타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가운데 담장을 맞는 3루타를 허용했다. 타구의 체공공간이 길었기 때문에 빠르게 스타트를 서치러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오브 애너하임과의 홈 개막전에서 1번타자겸 중견수로 선발출장해 5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 공격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

다행히 1사 3루 위기상황에서 불펜투수 J.J. 후버가 후속타자를 범타로 처리해 실점을 막아내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클리블랜드에서 우익수로 뛴 추신수는 바리크 10경기에서만 중견수로 뛰었고 그나마 2009년 이후로는 한번도 중견수를 맡지 않았다.

2000년 시애틀을 입단후 투수에서 타자로 전향해 주로 우익수로 뛰었던 그로서는 새롭게 주어린 중견수 보직은 “새로운 도전”이다. 많은 메이저리그 전문가들도 신시내티가 추신수를 우익수가 아닌 중견수로 기용한 점에 대해 “도박”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추신수는 앞서 시범경기에서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신임을 얻었지만 정작 본 게임에서는 불안함을 드러냈다. 한 가지 참고할 대목은 추신수가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중견수 수비를 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올 시즌 클리블랜드에서 신시내티로 팀을 옮긴 추신수는 그동안 애리조나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소화했다.

홈구장에서 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추신

수에게 담장까지의 거리나 구장구조 등은 낯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머리위로 날아오는 타구는 타구와 펜스까지의 거리를 톺아 살피야 하기 때문에 베테랑 중견수들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염두에 뒀다.

현지 해설진도 이러한 점을 들어 추신수를 두둔했다. 현지 해설자는 “추신수가 새 홈구장에서 뛰는 게 낯설어서 그런지 타구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면서 “아직 수비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제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첫 걸음을 뗀 추신수의 수비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이다. 신시내티는 이날 주전 좌익수이자 4번 타자인 라이언 루드윅이 3루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도중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루드윅의 부상이 길어질 경우 추신수는 좌익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